

너무 비싸 땀이 나요!



삼계탕 1인분 1만9000원·냉면 1만2000원 아이스크림 등 여름 음식값 두자릿수 올라

“어휴.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
13일 오후 12시께 광주시 동구의 한 삼계탕 전문점은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붐볐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여름철 보양식인 삼계탕을 먹기 위한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날 지인들과 식당을 찾은 강모(49)씨는 자리에 앉자 음식을 주문하기 전 메뉴판을 보자 다소 놀란 모습이었다.
이 식당에서 삼계탕 한 그릇의 가격은 1만9000원. 강씨 일행은 한 그릇에 2만3000원인 전복삼계탕을 주문했다.
강씨는 “2~3년 전만 해도 삼계탕 한 그릇에 1만5000원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불과 몇 년 새 크게 오른 듯 하다”며 “전복 한 마리 들어간 삼계탕이 2만3000원이나 하니, 자주는 못 사먹겠다”고 말했다.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나모(55)씨도 한 마디 거들었다. 그는 “삼계탕 두 그릇이면 2~3년 전 백숙 한 마리 값이다”며 “요즘엔 식당에서 4~5만원에 팔던 백숙 한 마리로 7~8만원에 달한다. 불경기 속 서민들은 여름철 몸 보신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7월 장마와 함께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여름철 대표 음식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나, 물가상승으로 인해 가격이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날 한국소비자원의 가격정보 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광주지역의 삼계탕 한 그릇의 평균가격은 1만6400원이었다. 지난해 5월 1만4800원이었던 것을 감안, 1년 새 2000원

(10.8%)이나 오른 것이다.
삼계탕 가격이 오른 것은 닭고기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를 보면 지난 11일 기준 1kg당 닭고기 소매가격은 6364원으로 1년 전(5682원)보다 12.0% 올랐다.
삼계탕 뿐만이 아니다. 여름철 더위에 잃은 입맛을 되살려주는 시원한 냉면 역시 가격이 급등하는 추세다.
광주시 북구의 한 유명 냉면집에서는 물냉면과 비빔냉면 등 냉면을 한 그릇에 1만2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또 광주의 한 유명 갈비집은 냉면 전문점이 아니지만, 이곳에서도 냉면 한 그릇의 가격은 9000원이다.
‘참가격’을 보면 올 5월 기준 광주의 냉면 한 그릇의 평균 가격은 9400원으로, 전년 동월(8600원) 9.30% 올랐다.
최근 수입 메밀 평균 가격이 1kg당 4300원 정도로 3000원 초반 수준이던 평년보다 크게 오른 데다, 설탕과 소금, 계란 등 온갖 식재료 가격이 치솟아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밖에 우유 가격이 오르면서 더위를 식혀줄 아이스크림의 가격 상승세도 만만치 않다.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6월 아이스크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9.98로 지난해 동월 대비 9.4% 상승했다. 아이스크림 물가 상승률은 지난 3월 13.7%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5월(14.3%) 이후 약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3분기 경기전망 하락 설비투자·생산·수출 상황은 개선 중견기업 800곳 대상 조사

중견기업들은 올해 3분기 경기가 계속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설비투자·생산·수출 상황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2~26일 중견기업 800개사를 대상으로 3분기(7~9월) 경기전망을 조사한 결과, 경기 전반 전망지수가 92.1로 전 분기의 94.1보다 2.0포인트 낮게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지수가 100 이상이면 긍정적 전망을, 100 이하이면 부정적 전망을 뜻한다.
분기별 경기 전반 전망지수는 지난해 3분기 100.6을 기록하고 나서 지속해 하락하는 추세다.
업종별로는 전자부품·통신장비(107.6)와 자동차(102.8)만 100을 넘었고, 화학물질·제품(88.3), 1차금속·금속가공(80.3), 건설업(80.8), 식·음료품(85.6), 운수업(88.8), 도소매업(92.3) 등 대부분 업종에서 부정 전망이 많았다.
3분기 내수 전망지수도 92.6으로 전 분기의 93.6보다 1.0포인트 내려갔다.
다만 설비투자·생산·수출 전망은 지난 1분기 이후 형성된 개선 추세가 이어졌다.
설비투자규모 전망지수는 101.9로 전 분기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생산 전망지수와 수출 전망지수도 각각 100.3, 97.6으로 전 분기보다 0.4포인트, 0.3포인트 올라갔다.
설비투자·생산·수출 전망지수는 모두 지난 1분기 이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합뉴스

해양에너지, 폭우 속 발빠른 대처 빛났다

서구 풍암동 아파트 단지에 불안정한 가스 공급 확인 가스관 빗물 제거 철야작업...새벽 5시경 복구 마쳐

잇단 폭우로 배관에 빗물이 유입, 광주시민들의 도시가스 사용에 문제가 발생했지만, ㈜해양에너지의 빠른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했다.
13일 해양에너지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6시 20분께 광주시 서구 풍암동 614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불안정한 가스 공급 상황이 발생했다.
해양에너지는 이 단지에 가스 압력 기준치인 200mmH2O에 미치지 못하는 130mmH2O 이하가 공급되는 것을 파악, 가스배관에 빗물이 유입된 것으로 보고 즉각 대응반을 투입했다.
해양에너지는 가스안전공사에 이 같은 사실을 전

달한 뒤 즉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도시가스 공급을 중단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대응반은 탐측을 통해 압력 저하 현상이 발생한 지점을 찾아냈다.
대응반은 해당 지점을 굴착해 내시경으로 빗물 유입을 확인한 뒤, 호스를 넣어 빗물제거 작업을 벌였고 새벽 4시 30분께 복구를 마쳤다. 밤을 잊은 철야작업으로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시작되기 전인 새벽 5시 15분께 가스 공급을 재개할 수 있었다.
가스를 다시 공급하기 시작한 뒤에도 기준치에 못 미치는 130mmH2O 이하 수준 압력이 유지되

자, 해양에너지는 탐측을 재개해 발 빠르게 또 다른 문제의 배관을 찾아냈다. 대응반은 동일한 방법으로 복구작업을 펼쳐 13일 오후 4시께 작업을 완료했고, 배관 내 압력도 정상으로 돌아온 것을 확인했다.
오광호 해양에너지 전무는 “연이은 폭우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가스배관에 빗물이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며 “해양에너지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야작업을 펼쳐 단시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혹여 가스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세대를 위해 휴대용 가스버너를 준비해 뒀지만, 다행히 단 한 가구도 불편함을 겪지 않았다”며 “해양에너지는 앞으로도 안전한 도시가스 보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석 기자 mskim@

스타벅스 에코백에 무등산이?

광주시 협업 ‘광주 굿즈’ 출시

광주시가 스타벅스와 손잡고 지역 관광지, 명소가 담긴 문화상품인 ‘광주 굿즈’ 에코백을 출시했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스타벅스 광주 에코백에는 월봉서원, 중외공원(광주비엔날레), 예술의 거리, 양림동 펭귄 마을, 무등산 국립공원, 1913 송정역 시장 등 광주 명소 6곳의 그림이 담겼다.
광주시 건축경관과는 도시 브랜드 홍보 방안을 논의하다가 젊은 세대 등에 인기가 좋은 스타벅스 굿즈를 활용하자는 의견을 수렴하고, 스타벅스 측과 협의를 통해 문화상품을 출시하게 됐다고 한다.
광주 에코백은 광주 69개 스타벅스 매장에서 서민 구매할 수 있다.
지난 6월 출시 후 과하지 않고 모던한 디자인과 상징성으로 구매자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박금화 광주시 건축경관과장은 “직원들의 작은 아이디어로 지역 명소가 담긴 문화상품을 전국 최초로 선보이게 됐다”며 “이야기와 색깔이 있는 도시 브랜드 구축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혁신기술 집약 삼성TV 삼성전자가 98형 Neo QLED 8K(QN990) 신모델을 13일 국내에 출시했다. 이번 신모델은 '네오 퀀텀 매트릭스 Pro', '네오 퀀텀 프로세서 8K', '시네마 무빙 사운드' 등 혁신 기술을 집약해 최상의 화질·사운드·디자인을 갖춘 제품이다. <삼성전자 제공>

저소득·저신용 사업자 위한 ‘햇살론 특례운용’ 시행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91.23(+16.51)
▲ 코스닥	893.07(+13.19)
▲ 금리(국고채 3년)	3.602(-0.102)
▲ 환율(USD)	1274.00(-14.70)

중소벤처기업부는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14일부터 1000억원 규모의 햇살론(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을 특례운용한다.
현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1% 조건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면,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가 9%내외의 금리로 대출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이번 특례운용을 통해 보증비율은 95%에서 100%로 확대, 가산금리는 기존 4.77~5.94%까지 적용되던 것을 2.5%로 최대 3.44%포인트 낮췄다. 또 보증료율도 0.2%포인트 인하한 0.8%로 우대 적용한다.
보증한도는 운전·창업자금 2000만원으로, 임차보증금의 경우 5000만원(대한보증 불가)이다.
보증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전화(1588-7365) 및 햇살론 취급 상호금융기관 각 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상의, 모빌리티산업 일자리 네트워크 출범식

광주상공회의소는 13일 지역 자동차산업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빌리티산업 일자리 네트워크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모빌리티산업 일자리 네트워크는 ㈜광주글로벌모터스, 한국알프스(주), ㈜한국쓰리축 등 산업계 실무자들과 광주시, 한국자동차연구원, 광주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 관계자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모빌리티 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출범했다.
광주상의는 지역 산업계를 중심으로 일자리 현안에 적합한 이슈 발굴 및 고용 정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광융합·가전·스마트 뿌리산업’, ‘모빌리티’, ‘인공지능·데이터’, ‘에너지·메디칼스케이’ 등 광주지역 9대 대표산업을 중심으로 네트

워크를 구성하고 지난월부터 순차적으로 실무회의를 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주지역 모빌리티산업을 대표하는 기업 실무자들이 참석해 산업전환에 대한 지역 기업의 대응 상황과 정부, 지자체 차원의 기업지원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강조병 광주상의 협력사업본부장은 “지역 기업 대부분이 미래 모빌리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미래차 전환을 위한 기술이나 부품 등의 개발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다”면서 “미래차 전환이라는 물결 속에서 지역 기업들이 신속하게 기회를 잡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정보문진원, 콘텐츠 기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실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난 12일 ‘광주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킷오프 데이’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광주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은 광주지역 문화콘텐츠 창·제작자의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와 원활한 시장 진출을 위해 맞춤형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제공, 콘텐츠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 날 행사는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리는 킷오프 데이를 ▲프로그램 소개 ▲콘텐츠 분야 전문가 강연 ▲참가기업 그룹 멘토링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웹툰·웹소설·영상·융복합콘텐츠 분야 30여 기업, 콘텐츠 분야별 전문 멘토, 광주정

보문화산업진흥원, 엑센트리벤처스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앞으로 5개월간 운영되는 프로그램에서 참가 기업들은 ▲대 1 상시 맞춤형 멘토링 ▲월별 정기멘토링 ▲비즈매칭 행사 참여 ▲시장진출 지원 ▲엑센트리벤처스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직접투자 등 기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지원을 받게 된다.
이경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은 “기업 맞춤형 멘토링 및 사업과 프로그램 운영이 광주 콘텐츠 산업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창업자들의 네트워크 활성화 및 콘텐츠 아이디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